
2026 Vol.3
The Autumn
Art · Music · Dance · Drama&Film

선선한 가을바람을 따라 교정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갑니다. 나뭇잎이 저마다의 색으로 깊어지듯, 학교는 또 한 번 변화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계절을 통과하며 우리는 마침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흔들렸던 시간들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마다의 빛깔로 **성장**의 기록을 써내려가는 우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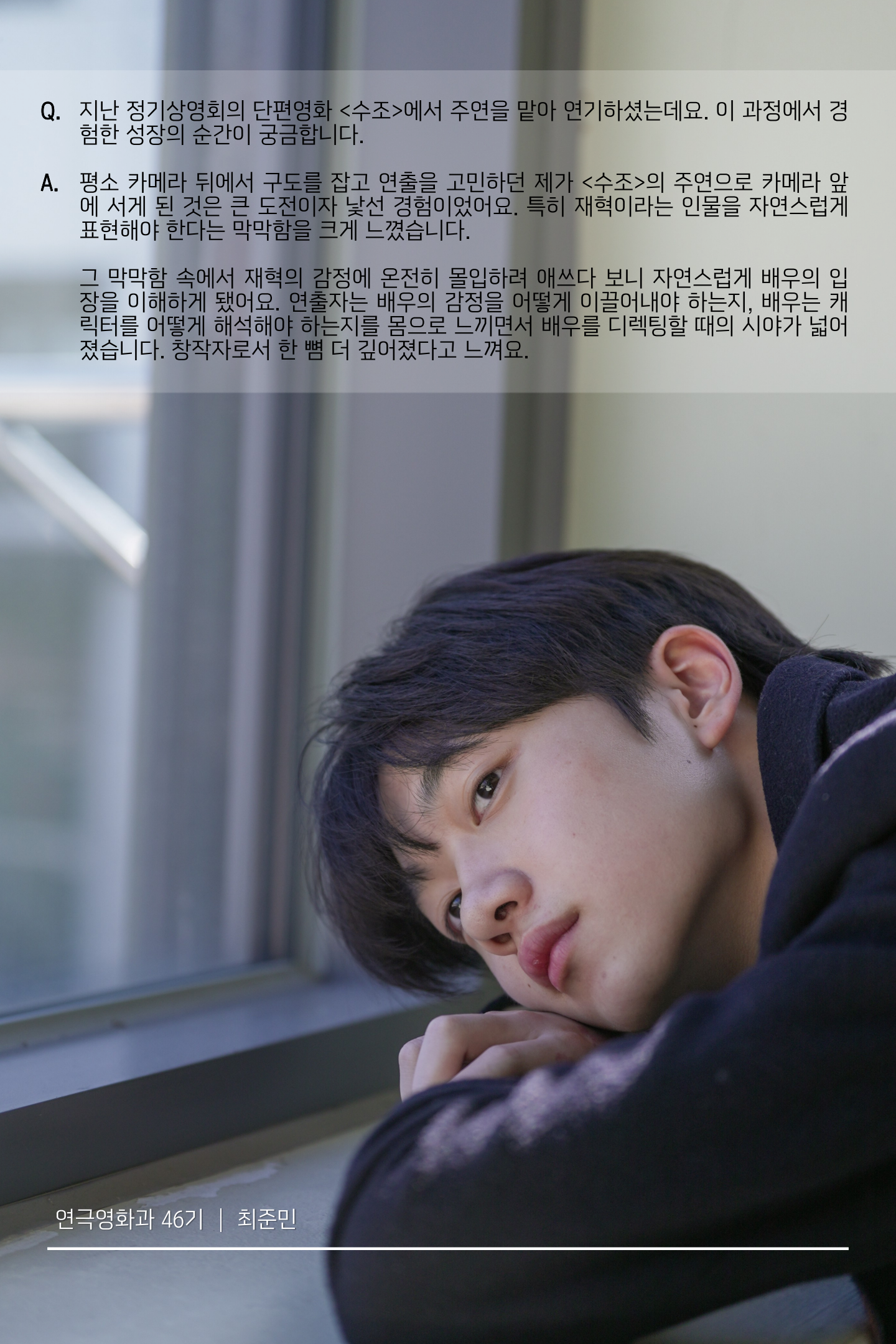
기획·제작 | 키온 기획부 장민준(연극영화과 47기)
촬영 | 키온 제작부 김하음(무용과 47기)
키온 제작부 손하율(미술과 46기)
키온 제작부 서지우(연극영화과 46기)

출연 | 최준민, 정하윤, 왕루빈, 홍지희

Q. 지난 정기상영회의 단편영화 <수조>에서 주연을 맡아 연기하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험한 성장의 순간이 궁금합니다.

A. 평소 카메라 뒤에서 구도를 잡고 연출을 고민하던 제가 <수조>의 주연으로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것은 큰 도전이자 낯선 경험이었어요. 특히 재혁이라는 인물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한다는 막막함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 막막함 속에서 재혁의 감정에 온전히 몰입하려 애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어요. 연출자는 배우의 감정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는지, 배우는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느끼면서 배우를 디렉팅할 때의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창작자로서 한 뼘 더 깊어졌다고 느껴요.



연극영화과 46기 | 최준민





Q.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 궁금합니다.

A. <수조>를 통해 카메라 앞과 뒤를 모두 경험해 본 것은 제 영화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한 가지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화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영화인이 되고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매 순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타인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해요. 단풍잎이 천천히 짙게 물들어 가듯, 매일의 작은 경험과 배움을 차곡차곡 쌓아 멈추지 않고 깊어지는 영화인이 되겠습니다.

Q. 지난 무용제에서 극찬을 받은 작품 <Alors>의 주역을 소화하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험한 성장의 순간이 궁금합니다.

A. <Alors>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용걸 선생님께서 안무하신 모던 발레 작품인데요. 클래식 발레의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춤을 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힘을 주었다가 풀었다가 하는 움직임이 많다 보니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의 춤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면서 거듭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1, 2학년 후배들과 같이 하는 무대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학년 선배로서의 책임감과 입시 준비를 병행한 데서 온 부담감이 컸죠. 하지만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무용과 45기 | 정하윤

The Autumn

Q. 바라던 대학교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 궁금합니다.

A. 감사합니다. (웃음) 저는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림 발레리나를 좋아하는데요. 이유림 발레리나는 뛰어난 테크닉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섬세한 표현력과 움직임으로 작품 속 여러 캐릭터들의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동작 하나 하나에 진심이 느껴지면서 관객이 작품에 몰입하게 하는데, 저도 그 점을 닮아 저만의 색으로 감동과 여운을 주는 무용수가 되고 싶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며 즐기면서 발레를 하고 싶고, 그런 저의 춤을 보며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좋겠습니다.





Q. 지난 드로잉전 <MY RECORD>에서 편집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험한 성장의 순간이 궁금합니다.

A. 학급 회장을 해본 적은 있지만 약 120명의 대표로 활동해본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편집위원장을 맡게 되었을 때,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전시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 기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부담감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 부담감 덕분에 더 긴장하게 되어 전시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9명의 편집위원을 이끌며 47기 친구들의 작품을 검토하고, 그림을 촬영한 뒤 사진 보정 작업까지 돕다보니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편집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술과 47기 | 왕루빈

The Autumn





Q.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 궁금합니다.

A. 촬영 감독이신 아버지께 영화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듣고 자라다보니 자연스럽게 무대미술감독이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꿈과 가까워지기 위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화나 뮤지컬을 감상한 후 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을 기르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제 꿈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특히 다채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우리 학교의 장점을 살려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작업들도 시도해보고, 점차 시야를 넓혀 저만의 개성을 가진 작품을 제작해 보고싶어요.

Q. 다가오는 정기연주회에서 성악 전공 대표로 협연자에 선정되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험한 성장의 순간이 궁금합니다.

A. 협연자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외국어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어울리는 표정과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사 한 마디 한 마디를 제 언어로 해석하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상황을 분석했어요. 처음에는 음정이나 테크닉 표현에 집중했다면, 연습을 거듭할수록 이 가사를 왜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지, 이 순간에 관객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지를 고민했죠.

저는 노래를 할 때 관객에게 제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깊이 고민하게 됐고, 어려운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힘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음악과 46기 | 홍지희

The Autumn

Q.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 궁금합니다.

A. 지금의 가장 큰 목표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더 깊이 있게 음악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보완하고 싶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결과만을 바라보며 달리기보다는 노래하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고, 음악이 제 삶에 큰 행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면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노래하는 성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계원예술고등학교
KAYWON HIGH SCHOOL OF ARTS